

최성진 (남, 48세)

12.28 염소자리

건설업자

건설업자는 건설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감독을 맡는다.
성진은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주로 미션과 다른 지역에서 생활한다.

“원하는 건 뭐든 이루고 말 것이다.”

늘 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들은 없었다.

딱 하나, 아이빼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한 이유?

그건 수컷의 본능적인 판단이었다.

성진은 놀랍도록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다. 정말 모든 것이 평균, 중간이었지만 성진은 자신의 집안이 금수저라고 굳게 믿는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성진의 부모님이 성진이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준 탓일 것이다.

성진의 특기는 새로운 모임에 가서 우두머리를 찾는 일이다. 성진은 기여코 그 우두머리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곤 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로부터 성진의 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는, 뭐 그런 비즈니스적인 답변말이다. 그렇지만 성진의 회사는 뼈대부터 모든 구조가 불안하고 이상하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피사의 사탑 마냥 기울어져 있을 게 뻔하다.

30대 시절 성진의 유일한 낙은 강남의 M술집에서 젊은 여자들과 노는 것이었다. 그때 지금의 아내인 미선을 만났다. 성진이 미선에게서 매력을 느낀 포인트는 사실 미선의 고양이 사연이 아니라 ‘첫 출근’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성진은 미선의 아무것도 알지 못 한다는 순수한 눈망울이 마음에 들었다. 자신이 가져본 적 없는 순수함을 욕망했다.

성진이 왜 그토록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지는 본인도 모른다. 사실 성진에게 아이는 예쁜 새끼 강아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자신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줄 귀여운 생명체, 과거의 미선이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그는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또 다른 새 생명을 찾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다.

#지정독백_미용실 안 새벽

최성진

신미선. 이렇게 까지 해야겠어?

미선이 분주하게 미용실 안을 정리하고 있다. 미용실 안 물품들 사진을 찍어 중고나라에 올리는 미선. 그 옆에서 미선을 따라다니는 성진.

최성진

인터넷 찾아보니까 임신하고 가만히 있는 것 보다 움직이는 게 더 낫대. 뭘 이렇게 서둘러서 일을 그만둬?
너 일 하고 싶어 했잖아. 어?

신미선

(새 트리트먼트를 들어 사진 찍다가 멈칫. 성진을 보고) 미용 약품이 임산부에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요? 이게 다 당신 아이를 위한거예요.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최성진

(미선의 뒤를 쫓으며) 알겠어. 다 알겠는데 이렇게 급하게 정리할게 뭐냐고. 어차피 우리 주말밖에 못 보는데 그럼 난 네 아이가 건강한지 어떻게 알아. 어? 대체 갑자기 어딜 간다는건데.

신미선

(결심한듯 몸을 일으켜 성진을 향해) 어머니가 아프대요. 어머니한테 갈거예요.

최성진

장모님이 왜. 저번에 봤을 때 건강했잖아. 내가 이번에 용돈 좀 보낼게. 보신하시라고. 그럼 된거지? 그 멀리 까지 가면 내가 너를 어떻게 봐?

신미선

(한숨) 가끔씩 당신 회사 있는 곳으로 갈게요. 됐죠? (수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는다)

최성진

(미선의 손목을 잡고) 이걸 왜 버려. 이것도 팔면 5천원은 받겠구만.

신미선

(손목을 뿌리치고 일어서 냉장고 정리하는)

최성진

그래. 너 마음대로해. 그대신 한달에 한 번씩 초음파 사진 갖고와. 아이 건강한지는 알아야지 어?

미선이 살짝 붉어진 두 눈으로 성진을 바라본다. 어색하게 웃는 입꼬리가 파르르 떨린다.